

### 이달부터 온라인 거래 결제 간소화 방침

# 카드사 “보안 어찌라고~”

#### 30만원 이상 거래도 인증서 없이

#### 휴대폰 인증만으로 결제 가능케

#### 결제 대행업체 정보 유출 우려도

정부가 내놓은 간편 결제 활성화 방침을 두고 곳곳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온라인 상거래 중 30만원 이상의 고액 결제 비중은 10%에도 못 미치는데도 보안을 외면한 채 편의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형 카드사인 한 카드사의 경우 지난 6월 전체 전자상거래 가운데 결제금액 30만원 미만의 거래 비중이 97.7%(건수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숫자를 공개하기 거부한 또 다른 카드사의 경우에도 결제 금액 30만원 미만의 거래가 90%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모든 카드사는 30만원 미만 결제에 대해서는 휴대폰 인증 등 간단한 방식의 인증만 거치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사실상 온라인 상거래를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은 간편결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30만원 이상 결제에 대해서 부정사용의 가능성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공인인증서 인증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공인인증서가 현재 이용되는 인증수단 가운데 보안성이 가장 확실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천송이 코드’ 발인 이후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8월부터 휴대폰 인증 등 손쉬운 대체 인증수단을 추가하도록 카드사들에게 요구했다. 정부의 ‘전자상거래 간편 결제서비스’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온라인 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LG+ 등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고



객들의 카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고객들이 공인인증서 추가 인증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카드사들은 “보안을 외면한 채 편의성만을 강조한 처사”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제금액 30만원 이상의 온라인 거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편의성 못지 않게 보안도 중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또 30만원 이상 결제 금액에 대한 휴대폰 인증이 일상화되면 스미싱 등 악성코드를 활용한 거래의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가 원하는 간편결제라는 큰 틀은 이해하지만 아직 안정성과 보안성 등이 확보된 대체 인증수단이 없는 가운데 당장 간편결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상당한 보안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초 대량 고객정보유출 사태로 충격을 받은 카드업계 입장에서는 관리하던 고객정보를 카드사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며, PG사의 카드 정보 관리를 카드사가 관리, 감독할 수도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카드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불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진행할 것이고, 보안성에 대해 검증할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물품 구매의 경우 물건을 받는 데 어느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비교적 적다”며 “공인인증서 말고 휴대폰인증 등 다른 수단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결제 금액	카드사 간편결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간편결제	
	휴대폰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휴대폰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30만원 미만	휴대폰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휴대폰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30만원 이상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자료/금융위원회

### 주간 증시 포커스

## 경기 부양정책 기대감 ... 2100 안착 시도

국내증권시장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뉴욕과 유럽증권시장은 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상황과 미국경기지표 호전에 따른 조 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며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가파른 조정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코스피지수는 3주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2011년 이후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처럼 보였던 박스권상단인 2050포인트를 넘어 2073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의 상대적인 강세는 부진을 면치 못했던 중국의 GDP 성장률이 개선과 중국인민은행의 시중유동성 확대가능성을 보이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신중국시장 전반에 관심이 확대됐다.

글로벌투자자들이 신흥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채무불이행 영향 등으로 상대적으로 유동성과 신뢰도가 높아 준선진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국내증권시장에 7월 한달에만 4조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다.

최경환 경제팀의 시장 친화적인 정부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부동산 비율규제 완화와 기업 배당활성화 등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외지가 시중유동성 확대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수혜주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7월 코스피지수는 월간기준 3.5%의 상승세를 기록하며 연간 최고치로 마감했다. 8월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가파른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며 2100포인트 안착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지만 가파른 추가상승보다는 그동안 우호적으로 보였던 선진주 시가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고 경기민감도가 높

은 중국경기에 대한 낙관론적 영향이 시장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4분기에는 미국의 조기금리인상 논의가 자주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추가상승 요인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도 신경제팀의 정책의지에 따른 상승은 시장에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부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실행할 수 있거나 지속적으로 국내증시의 상대적 약세요인이었던 국내 기업실적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8월에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은 여전히 7월 하반기 부각되었던 정책수혜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아 보인다.

첫번째로, 부진한 실적속에서 장기간 소외되었지만 최근 정부정책 모멘텀을 바탕으로 유동성장세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증권 은행 건설업종의 주가가 바닥권을 탈피하며 상승전환시도를 보이고 있다. 두번째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당확대정책은 단기적으로 고배당종목의 상승을 이끌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피지수의 한단계 레벨업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최근 상승으로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배당성향이 높은 대형주에 보유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정계두**  
〈증권투자증권  
광주복지점장〉

## 코스피 피자 주식형펀드도 ‘썩춤’

#### 지난주 2.21% 수익률 올려

코스피가 최근 3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주식형펀드도 지난 1주일간 2%를 웃도는 수익률을 올렸다.

3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는 한 주 동안 2.21%의 성과를 냈다. 대형주 강세에 따라 배당주식펀드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투자하는 K200인덱스펀드가 각각 3.12%, 2.66%의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 중소형주펀드는 0.68%의 손실을 내 가장 부진했다.

이번 주 코스피지수는 2.44% 올랐고 코스닥지수는 4.17% 내렸다. 대형주지수와 중형주지수는 각각 2.96%, 0.61% 상승했으나 소형주지수는 1.99% 하락했다. 업종별로도 은행과 통신, 증권, 금융, 전기가스 업종이 강세였으나 종이·목재, 기계, 의약품, 의료장비 등은 약세였다.

일반주식혼합펀드와 일반채권혼합펀드는 각각 1.15%, 0.50%의 수익률을 올렸다.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주식펀드 1천652개 펀드 중 수익을 낸 펀드는 1천461개였다. 이 가운데 529개 펀드가 코스피 수익률보다 높은 성과를 냈다. ‘KRX BANKS’지수를 추종하는 미래셋 TIGER은행성장지수(주식) 펀드와 삼성 KODEX은행 성장지수[주식] 펀드가 각각 9.53%, 9.52%의 수익률로 주간 성과 1, 2위에 올랐다. 그러나 삼성KODEX조선주성장지수[주식] 펀드는 7.54% 하락해 가장 부진했다.

국내채권형 펀드는 채권시장의 약보합 마감으로 0.01% 손실을 냈다. 초단기채권펀드와 머니마켓펀드(MMF)가 0.05%, 일반채권펀드도 0.01% 수익률을 각각 올렸으나 우량채권펀드와 중기채권펀드는 각각 -0.01%, -0.06%에 그쳤다.

이번 주 해외주식펀드는 0.73%의 수익을 내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

##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자금 50% 확보 가능”

#### 국민연금연구원 노후준비 실태 조사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20~30년 이상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의 50~70%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자체 분석결과를 국민연금연구원이 내놓았다.

3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 2011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과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매달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부부기준은 월 184만원, 개인 기준은 월 110만원이었다.

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20년간 빠짐없이 보험료를 낸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수령액은 남자는 월 70만원, 여자는 월 60만원으로 추계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20년 이상 가입했다면 노후필요자금을 개인기준으로 남자는 64%, 여자는 55%를, 그리고 부부기준으로는 노후필요자금의 71%를 매달 받는 연금으로 각각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개인이 각자 알아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면 좋겠지만,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속에 부모부양, 자녀교육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에 사회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부모부양을 가족의 책임으로 여기던 과거와 달리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점점 늘고 있다고 공단은 지적했다.

공단은 “국가차원의 국민연금과 기업차원의 퇴직연금, 개인차원의 개인연금 등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도록 세계은행은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 권고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하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준비할 수 있고, 나머지 30~50%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충한다면 든든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주)오천경매 / (주)오천개발

대표, 최선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시 동구 찬변로 339, 2001호

---

##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투자 가능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분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2대1 또는 1대1 투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 설정으로 보장  
연 10~24% 매월 지급  
투자기간은 1년 정도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